



◇마곡국 석조 여래부처님은 어느 곳에서 보이도 자애롭다.



◇'우리 뿌리를 재확인한 소중한 기회였어요' 석굴암과 남산 부처님에게서 한국인의 얼굴 원형을 발견했다고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이다.

# “바위마다 부처님 미소”

정병국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 연구원)

전문가 안내

**석굴암** 석굴암은 신라인의 믿음과 슬기로 이루어진 찬란한 문화의 금자탑이다. 신라인의 신앙적 소산이며, 치정차와 백성이 혼연일체된 민족정신의 응결체로 볼 수 있다. 사상적으로 볼 때 토함산은 신라오악중 동악으로서 신라인들에게 영악(靈岳)으로 존송받았던 산이다. 석굴암이 창건된 경덕왕(751년)대는 정치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신라역사상 최고의 융성기였다.

석굴암 석실의 구조와 조상(彫像)의 수는 전설은 방형이며 8부중과 2구의 금강역사가 있고 비도(비도)에는 4구의 사천왕이 안치되고 원형의 후실안의 조상은 모두 24구이다.

본존불상은 그 조각의 종교성과 예술성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작품이다. 반개의 눈, 아름다운 그자체를 나타내는 눈썹, 미간에 서려있는 슬기로운, 금방이라도 설법할 듯한 자애로운 입과 코, 길게 늘어진 귀, 금타식의 나발, 백호 등 하나하나의 부분이 생명력을 충실히 간직한 깨달음의 모습으로 표현됐다. 얼굴은 인자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위엄을 갖았다.

**석굴암 본존불 예술성 탁월**  
**곳곳 불상...남산 '노천박물관'**

경주 남산 남산은 신라 사령지(四靈地)가운데 한곳이다. 남산의 동남산 북쪽이 옥룡암이라

는 암자가 있고 그 뒤 거대한 암석에 탑곡마을조상군(보물 제201호)이 있다. 암석은 사방 사면으로 되어있고 가장 높은 북면은 높이 9m 사방 30m 정도 돌져 있다. 북면 바위는 여래상을 중심으로 암굴로 목탑이

있고 그위로 비천(飛天)의 모습을 조각하였다. 목탑앞에는 사자형상의 짐승 두마리가 지키고 있다. 장제모습이 상징하는 뜻은 석가모니의 설법공경으로 추정된다. 서면 바위에는 여래좌상과 비천상이 안치되고 남면바위에는 삼존불상이, 원면에는 여래좌상과 그 앞에 여래입상이, 정면으로는 석등을 세웠던 자리와 삼층석탑이 있다.

탑곡에서 동쪽으로 500미터 지점이 마복굴이다. 그곳에 보리사와 미륵곡석조여래좌상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몸통부분이 얼굴에 비해 작은 편인데 이것은 조성양식은 통일신라 이후에 유행하던 수법이다.

신라오악중 동악인 토함산의 석굴암 부처님과 남악인 남산의 부처님들을 살펴볼때 다양하게 전개되는 종교관의 신앙체계와 결부되어 신라인의 슬기, 희로애락, 슬기로운과 강한 호국 사상을 느끼게 된다. 신라바위에는 고신라에서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형태의 불상을 보이다가 통일기에 불교가 정착되면서 한국의 독특한 불상이 고착화되어 그 형상은 영속 단정하고 정교하면서도 우아한 자태를 자랑한다. 불교가 가장 꽃피 8세기 부처님들은 이상 세계가 확실히 실현된 가장 승화된 신라인의 얼굴이었다. 이러한 형상이 지금의 우리 정서와 크나큰 공감을 형성한다면 이는 곧 신라인의 얼굴이 우리 민족의 얼굴이요, 우리 민족의 정서요, 한국인의 얼굴임을 찾아볼 수 있다.



◇석굴암 심층석탑에서 정병국연구원의 설명을 듣고있는 참가자들.

기 힘든 신비의 세계다. 동자때면 햇빛이 석굴암 본존불의 백호에 정면으로 비추는다고 한다.

“한국사람들은 적어도 일생동안 석굴암에 두번은 온다고 합니다. 수학여행 때 오고 또 한번은 나중에 옛날 기억을 떠올리며 참배를 온다는 얘기도요. 석굴암부처님의 미소를 자신의 모습을 늘 비추보는 거울로 삼고 장정하심시오.” 석굴암 주지 법달스님의 자상한 법문이다.

**한국사람 두번은 다녀가**

노천박물관으로 불리는 경주 남산, 지금까지 발견된 절터가 129곳, 불상이 99체, 크고 작은 탑들이 73기나 되는, 말 그대로 불국토이다. 남산에 있는 부처님들도 도가 깨지고 손이 잘리고 심지어는 얼굴전체가 없어지는 등 수난을 당해왔다. 그나마 다행으로 미륵곡에 있는 '석조여래좌상(보물 제 136호)'은 원래의 자비로운 모습을 그

큰 바위에 우주를 담아놓았다.

안내사 정병국연구원은 “당시 신라인들의 사상과 정서, 열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이 불상들”이라며 “직접 현지에서 부처님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가슴저변에 흐르는 일맥상통하는 공감대를 느낄 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우리 뿌리 재확인 기회”**

불교문화 테마여행 1회째부터 계속 참여했다는 김향순씨(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는 “우리 불교 문화의 한없는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었고 이번 여행에서 마치 신라인이 된듯 했다”고 기뻐했다. 김향순씨(서울 도봉구 장위동)는 “우리의 뿌리를 재확인한 소중한 기회였다. 돌부처님들의 얼굴에서 우리의 조상 신라인들의 친근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천년 고도의 향기로운 승결에 몸을 흠뻑 적시고 귀경하는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석굴암 본존부처님을 닮은 넉넉한 미소가 가득 담겨 있었다.

글=이경숙 사진=고영배 기자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

초록이라고 하나 푸르기에는 풍부한 색감이 너무나 고운 신록. 싱그러운 신록의 향기가 점점 높아지는 4월 말, 170명의 답사자들은 천년 고도 경주로 떠났다. 현대 불교신문이 주최하고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가 후원하는 세번째 불교문화 테마여행의 목적지는 '석굴암과 남산'. 수학여행 때 누구나 한번쯤 가 보았을 경주는 사실 한번으로는 너무나 아쉬울 정도로, 보고 또 봐도 보고싶은 우리 문화유산의 보고다. 정병국연구원(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의 자상한 안내와 길의는 석굴암과 남산에 대한 이해를 한층 새롭게 해주었다.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4월 석굴암·남산

“한국인의 얼굴 - 석굴암과 남산부처님”



◇완벽한 미의 석굴암 본존부처님.

“우리는 무엇보다도 있어서 안될 작품으로 경주의 불상을 갖고 있다. 영국인인 인도를 버릴지언정 세익스피어를 버리지 못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귀중한 보물은 이 석굴암의 불상이다.”

석굴암 부처님을 찾아가는 길에서 우리 미술사의 태두 고유섭 선생이 (신라의 조각)에서 이렇게 극찬한 글을 읽을 수 있다. 지난 1995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전세계인의 성배가 된 석굴암, 석굴암 부처님을 견경하기 위하여 새벽 4시 하현을 향한 반달의 달빛이 눈부신 토함산 기슭을 울렀다. 스님의 새벽여불소리가 청량하게 발걸음을 인도한다.

**이 세상 가장 완벽한 불상**

우리나라 불상을 대표하는 석굴암 부처님은 언제 보아도 단아하고도 기품있는 자태로 맞아준다. 아! 부처님! 이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불상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조각미와 신비로운 미소가 석굴을 꼭 채우며 눈앞으로 다가온다. 저절로 경배가 울려진다. 8부신중, 사천왕상, 금강역사, 삼일면관음보살, 삼대제자 등 벽면과 감실의 조상(彫像)들 모두가 역동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최정호교수(연세대)는 '석굴암'을 주제로 한 글에서 “...본존불이 독특하고 있는 '술로'의 세계가 아니라 수많은 조상(彫像)들이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몸짓으로 교향하는 돌의 오케스트라요, 평면 아닌 입체의 만다라 그림이요, 변

## “석굴암 참배 자애로운 삶 배우고 남산 오르면 누구나 신라인되고...”

화무쌍한 조각의 '프레스코벽화'를 두른 석불사원"이라고 감탄하고 있다.

《삼국유사》권 5 '대성효이세부모신문왕대'를 보면 김대성은 현재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석굴암)를 세웠다고 한다. 김대성이 창건한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이렇게 훌륭한 결작을 이룩한 것은 신라인의 민족혼이다. 김대성의 발원은 신라국민의 열반이었고 석굴조상은 혼연일체된 민족정신과 온국민의 정성이 응결체로 나타난 소산이다. 석굴암의 과학적 구조는 현대인들도 풀

대로 지니고 있다. 고목의 뿌리처럼 단단하게 놓인 8각 복련위에 8각 기둥이 솟아있고 그 위에 맑고 부드러운 양면이 피었다. 하얀 화강석으로 조성된 이 여래상은 크고 둥근 연꽃위에 결가부좌하고 축지함마인의 수인을 한 채 긴 눈을 가늘게 뜨고 사바세계를 굽어 살핀다. 석굴암 본존부처님보다 한결 친근하고 소박한 모습이다.

탐곡에 있는 높이 9m 사방 30m 정도의 커다란 암석군에 새긴 마애군상 사면석불은 남산중에서도 명물이다. 650년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개인소장용으로 제작 · 보급되는 반가사유상!  
우리문화재 사랑의 시작입니다.

■ 작가: 이진형 (불교조각원장)

- 30여년간 불교조각에 전념해온 저경문화재 조각가님 제80호 불교조각원 이진형 원장이 심혈을 기울여 속조제작한 작품으로 고전미와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약력

- 81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총무위원장)
- 8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특별상)
- 89~95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원 4회
- 제1회 불교조각 개인전 개최 (1995년)
-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추천작가

현재: 전통문화재 기능인 협회 이사

- 주문시 오토나무 박스로 완전포장하여 관매 및 발송해 드립니다.
- 본 제품은 크기 · 형태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 개금을 원하시는 경우 개금비가 추가됩니다.

규격(폭×높이)	형태	골동품형(左), 코팅형(右)
11cm × 26.5cm		230,000원
16cm × 40.5cm		350,000원

■ 지역 구입 문의

- 안산 (0345)411-4580
- 목포 (0631)281-2534
- 부산 (051)634-5114
- 광주 (062)375-9986
- 속초 (0392)636-3923
- 인천 (032)461-3461
- 강릉 (0391)651-9317
- 영주 (052)34-3429
- 대구 (053)768-8008
- 대전 (042)625-1080
- 공주 (0416)55-0020
- 마산·청원 (0551)84-0735
- 진주 (0591)747-0106

● 기획·보급: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32-1522, 737-8881 팩스: (02)737-0697 ●

